

활동가들의 목소리 말·말·말...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자 대부분은 실무자다. 실무자들은 1월 28일 조별 회의를 통해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비전과 활동과제를 발표했다.

다. 스님에게 돈 드리지 말 것, 시민단체에 기부하는 문화 개선이 필요하다.

#중단에 의지하지 않아야

개별단체들의 고유영역이 있지만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개별단체는 역량이 부족하고 한계를 느낀다. 네트워크 차원에서 사안별로 공유하면 단체 간 시너지 효과를 얻을 것이다. 각각의 단위사업에서 노하우를 전수할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불교자주화 등의 이슈와 정책 사안들을 중단에서 먼저 제시하고, 단체가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길 바란다. 단체가 종단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할 사업의 시작부터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종단과 단체의 논의구조와 형태를 상시화하고 단체들의 역할과 신뢰가 중요하다. 불교가 힘을 얻고 신뢰를 얻기 위해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가져오아야 할 필요가 있다.

불교자주화 등의 이슈와 정책 사안들을 중단에서 먼저 제시하고, 단체가 따라가는 형태가 아니길 바란다. 단체가 종단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할 사업의 시작부터 논의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저생계비를 보장, 기부문화 개선해야

불교시민단체 활동가로서 처절하게 생활하고 있다. 봉사나 보시의 개념으로 활동가에게는 돈을 너무 적게 준다. 인제육성을 말하는데 최저생활비는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젊은 분들이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활동가들은 "젊은 활동가에게는 빨리 나가라"고 권유한다.

사찰이나 불교관련 단체는 봉사, 보시의 개념으로 저임금으로 부러먹는다. 일할 수가 없다. 89-90만원 받고 일하면 젊은 사람 살아남지 못한다.

월급부터 제대로 줘야한다. 최소한 사회적으로 인식되는 130만원 정도의 최저생계비는 보장되어야 한다.

기부문화를 개선하자. 스님 생신 때 신도들이 봉투를 건넨다. 종무소 직원이나 활동가들은 4대 보험 혜택도 못 받는데, 스님은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닌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스님은 보다 저렴한 가격의 차로 다니고, 기름 값을 조금 아끼면 활동가들의 4대 보험은 충분히 해결된다고 본다.

신생단체, 조직화 되지 못한 단체에 지원, 기술적인 지원과 멘토 역할을 통해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사안이 있을 때보다는 상시적, 정기적인 회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단체에서 회비를 납부하고 운영위원회 정도에서는 회의를 가져야 한다. 운영위원회 정도는 이곳을 떠나기 전에 결정되기 바란다.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활동가는 그대로다. 양적인 성장은 있어 보이지만 질적인 성장은 없었다. 질적인 성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회변화를 위해 불교단체의 새로운 운동방식이 필요하다. 기존방식을 탈피한 젊은 운동방식이 필요하다. 활동가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문을 꾸준히 노력해 해결책을 찾자. 논의의 장을 만들고 젊은 층들이 믿을 수 있는 포교가 필요하다. 미디어를 통한 포교로 젊은 사람을 유입하자.

#네트워크의 정체성 여전히 의문

불교시민사회의 기본 개념은 무엇인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 NGO인가 신생단체인가. 기준이 모호할 수 있지만 구분 지을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별단체의 수위가 다르다. 아우를 수 있는 연대가 돼야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돼 긍정적으로 연대활동을 바라본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의 필요성은 갖고 있다. 워크숍 단계에서 운영비를 뽑고 운영을 할 만큼 성숙해 있는지 아직 모르겠다. 정체성에 대한 기초적인 논의가 없었다. 서울 지역 외에 확산되려면 내구, 활동 목표와 비전 등이 준비돼야 한다.

#활동사안에 스님 영향력 축소시키야

활동 사안 결정에 스님들의 영향력을 축소해야한다. 불자로서의 역할과 활동가로서의 역할 같듯이 있다. 사회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신뢰와 설득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상

근자가 꾸준히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한다. 사안에 대해서 공유가 없었다. 각 단체의 이익 우선이었다. 네트워크 활동에 가이드라인, 현실적인 실천지침, 규정이 정해져야 한다.

네트워크 구성이 회의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실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되길 바란다. 4대강 사안에 논리성이 부족했다. 논리적인 대응과 교육이 필요하다.

'스님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스스로 타파해야한다. 단체의 고정관념을 스스로 타파해야한다는 것. 승가에 대한 올바른 위상과 정립이 필요하고 단체 유지를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단체의 현실을 위해 사안별 연대가 필요하다. 내부적 이슈에 대해서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한다.

#젊은 층도 사회문제에 접근해 해라

대학생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들을 기회보다는 살아갈 경제적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다. 인권 평화 경제 분야에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공감을 얻고 공유를 통해 키워가야 한다. 스님은 후원자가 되고 재가자 중심의 단체로 자리잡아야 한다. 단기적인 단체가 아니라 장기적인 모임으로 성장해야 한다.

#총무원장 스님의 상황 판단 정확하다

총무원장이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 네트워크 활동가들이 공동이 원하는 것, 한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활동을 하고 네트워크는 뒷받침해야한다.

외제 선정에는 사회적 의제와 불교적인 의제로 나눠 가야한다. 사회주제에 큰 포지션을 가지고 나아가길 바란다.

#네트워크 쉽지 않을 것

각 단체의 개성이 뚜렷해 네트워크는 쉽지 않을 것이다. 네트워크 설립을 위해서는 의제가 필요하다. 중요이제를 발표 후 교육지침과 로드맵이 형성돼야 한다. 현안 발생에 대해서도 실무자들도 내용을 모를 때가 많다. 현안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어떻게 운영될까?

그동안 불교시민사회단체들은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4대강 생명살림' 연대활동을 통해 생명존중사상을 알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4대강 사업 추진에도 제동을 걸었다. 조계종의 봉은사 직영사찰선정 과정의 문제에서도 불교시민사회단체는 연대활동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종단과 사회를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2010년 하반기에 조직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불교시민사회는 공동의제로 △한반도 생명평화공동체 △불교사회역량 강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연구개발해 나간다. 또 젊은 시민사회 활동가 양성, 사찰의 중장년 인력 참여 유도 등으로 신규인력 육성, 활동가 공동교육 및 연수

등을 통해 인력 육성에 나선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단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예코부터, 청정승가를 위한대중결사, 참여불교재가연대, 인드라망, 광주전남불교NGO연대 등 7 곳이다.

예산은 봉은사 등 사찰에서 월 정기 지원을 받고 단체별로 부담한다. 공동대표단체는 년 200만원, 집행위단체는 년 100만원, 회원단체는 년 30만원 부담금을 내야한다.

2011년 중반까지 장재원 국장 1명이 상근하며 추후 2명까지 상근자를 둘 계획이다. 사무실은 수운회관 내 청정승가위원대중결사 사무실을 임시로 사용하게 된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불교자주화 성명발표

정은경 아시아밝음공동체 자원활동가

"종단의 다짐과 선언이 한 순간의 공분이나 타협의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철저한 내면의 성찰을 통해 불교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발전시켜야한다."

실정불교전국승가회, 참여불교재가연대, 불교환경연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등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1월 28일 조계종의 '자정과 쇄신 결사'의 담화를 통해 비장한 각오로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네트워크는 성명서에서 "헌법에 명시된 민족문화 창달과 문화유산 계승에 관한 국가적 의무에 대해 그동안

불교에 특혜를 주는 것과 같은 왜곡된 관행을 만들어 온 국고지원의 잘못된 형태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안으로는 사람의 투명한 재정 집행과 종단 차원의 '불사심의 위원회' 구성 등 제도적 보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불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감을 높여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네트워크는 창립을 앞두고 "불교 자정과 쇄신을 위한 결사에 지혜를 모으고 때로는 종단 내부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잘못된 관행을 쇄신하기 위해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언 기자

“고귀명수(鼓龜命數 : 육임운명판단법)” 출시 및 “효사 활인천역집(曉史活人天役集 : 육임종합 CD프로그램)” 2011 완결최종판 안내!

신용카드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시보·내정·신분·귀신·부정·산소탈등의 정확도·편이도·효과성이 백미입니다. 미리 알고 먼저 말하게 되는 명품(名品)입니다. http://한국육임학회 팝업에 '활용효과성'을 위한 아래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2011 완결최종판과 '고귀명수'의 각 설명 강의 동영상을 올려 놓았습니다.

1. 효사활인천역집 CD프로그램 2011완결 최종판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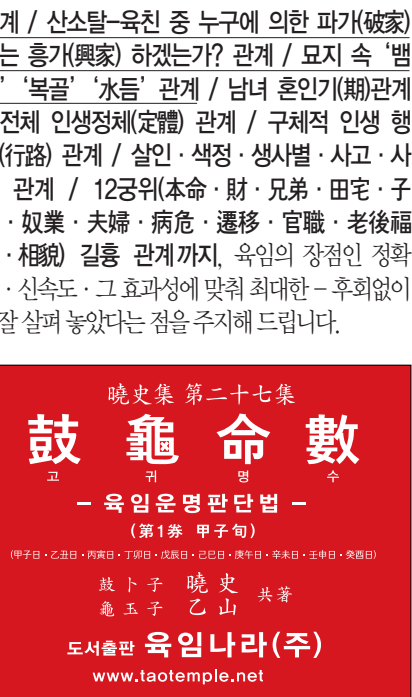
- 1. 정가 : 5백만원
2. 기능 : 상담전문활용육임종합 CD 프로그램
3. 업그레이드내역 : 가. 승인(인증)기능을 없앴음. 나. 신분 직업을 미리 알수 있도록 보충 하였음. 다. 초사(初辭)와 내정(來情)의 핵심사에 대한 애매성을 불식시키기위해 아래 사항들의 낮 밤, 남·녀 구분 및 여간(語間)의미를 최정련 시켰음.
1). 근친상간자에 대한 판단의 정확도를 위해 해당 친장 분별과 낮·밤 시간 구분 표시를 철저히 했음.
2). 남녀상간관계(一男二女·一女二男)와 불비·부족관계에 있어서의 애매한 부분(三傳三合/四課全·一陽一陰)에 대한 채용·불채용의 적용을 명확히 했음. 이때 남자 또는 여자가 절두로 남자 또는 여자를 살해하게 되는 데

- 상 남녀의 구분도 엄중히 했음.
3). 교통(徵童) : 남자가 타인의 부인을 유혹하여 책정거려 하는 것과 음임(淫淫) : 여자가 남자를 적극 유혹하여 가출하려는 것의 낮·밤 시간 판단구분을 철저히 했음.
4). 부인이 간사(姦私)로 남편을 살해하는 대상 여인도 엄중히 구분해 적시 했음.
5). 매질사위 신분임을 철저히 구분해 적시 했음.
6). 처에 의한 소송을 당하는 남자를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7). 부부이별 하는자에 대한 구분을 철저히 표시 했음.
8). 상신(傷身) 또는 불구(不具) 여부가 본인·처첩·자녀·부모·형제 중 누구에게 해당되는지를 엄중히 표시 했음.
9). 할광사의 대상과 암매사의 대상을 양일(陽日)과 음일(陰日)로 분명히 구분시켰음.
10). 고등(사법·행정·외무·법률·회계) 시험과 대학입학 시험 합격자 및 선지 당선자 여부를 별도로 표시 했음.
11). 12귀신(作事鬼·病鬼) 중 '여귀(女鬼)' '음귀(陰鬼)' '가택귀(家宅鬼)'의 종류를 새로 보강 했음.
12). 12부정(邪宗)중 부정침범부위(신·법·가택) 등을 철저히 구분해 표시 했음.
13). 산소탈 14부 중 묘지속 상태에서의 '별급' 여부·'복골' 여부·'수들' 등 여부를 재정련 시켰음.
14). 집안에 귀물(鬼物) : 木·火·土·金·水)이 있는 경우 이를 표시 했음.
15). 기타에 있어

- 가) 이 사람이 왜 왔는가?
나) 이 사람의 전체적 상황은 어떠한가?
다) 이 사람의 구체적 문제는 무엇인가?
라) 이 사람의 비밀사안은 어떤 것인가?
마) 묻고자 하는 일이 이미 벌어졌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인가?
바) 바깥일인가? 집안 내부 일인가?
후회하는 일인가?
사) 밝혀져 되는 일인가? 숨기고 싶은 일인가?
아) 上人(男)에게 유리한 일인가? 下人(女)에게 유리한 일인가?
자) 내 말을 신뢰 하는가? 설득해야 하는가? 자기 고집이 있는가? 등 위 프로그램에 장착된 15종 600여가지 사안 중 위 큰 항목 1·2·3 세가지와, 작은 항목 1-15 내용을 정련·보강·삭제 시켰으므로 완결 최종판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4. 기존 "효사활인천역집 I·II·III CD 프로그램"의 교환 요구가 많아 2011.1.24~2.15일까지 교환 기간을 정했습니다. 이 기간 안에 모두 교환해 쓰십시오.
■ 교환가격 위 I 90만원 위 II 70만원 위 III 50만원 위 2010완결판 30만원
■ 분개(分個)육임산책 CD 150만원
■ 분개(分個)육임재정비법 100만원
www.taotemple.net

2. 고귀명수(鼓龜命數) 출시 안내

"안녕하십니까?"
중동지절(仲冬之節)에 저 고복자 효사 문안드립니다.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를 시작한지 4년만에 드디어 완성 시켰습니다.
선입금 하시고 지금껏 기다려 주신 분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귀명수' - 혼신을 기울여 무성계 잘 만들었습니다! 이제부터 사주(四柱)에 연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메일메일 시간시간의 방문자마다, 이어지는 다음 사람들까지, 또는 출생 연월일시별로, 표시 놓은 해당 쪽수만 펼치면 거기, 군더더기 하나 없는 속 시원한 내용들이 토박 토박 써져 있을 것입니다.
읽고 해석해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도직입적인 부동(不動) 단구(單句)들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간추려 드리건대 수명 관계 / 건강·질병 관계 / 직업·신분 관계(來情과 命運 境遇) / 배우자 성정·용모 관계 / 명운 관계 / 부부 선행사(先後死) 관계 / 일생 귀인조력·유무 및 그 거시기 관계 / 일생 구해(仇害)인 유무 및 그 거시기 관계 / 육친별 상신불구(傷身不具)관계 / 출산자녀 친·구(親·仇)관계 / 매년 나이별(신수) : 길흉관계 / 떠벌 현재 상황 관계 / 여자인 명 관계 / 초·중·말년 12사귀·12경귀·침범 관계 / 신·법·가택·초·중·말년 12부정 침범



특히 이러한 내용들을 일별할 수 있게 한 일, 즉 복·명(卜·命)을 합쳐 '명운(命運)'과 '당면사정(當面事情)' 등이 모두 한 면 한 면에 들어다 보이게끔 구성시킬수 있었던 것은 저의 '일상(日常)을 떠난 세월'과 '육임에 대한 역사성'을 갖지 않으면 도저히 못해 낼 작업이었고, 예제자 귀족자 乙山の 외지조응(外之助應)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 '고귀명수'의 완성은 '육임이 복(卜)일뿐 명(命)에는 약(弱)하다'는 오해를 단 한번에 불식시킨 쾌거로서, 수천년 육임사에 이 책과 같은 '명·복 활용서'로 까지 만들어진 예는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제 개인의 불행사가 육임 '고귀명수'를 만들어내게 한 소명(召命)으로 여기고 이 책의 완성과 함께 제 인생의 완성도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명운에 있어서 -이 책처럼 딱딱 부러지는 '정형화(定形化) 되어있지 못한 것'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면 이것, 저것이면 저것으로 자기 이름을 걸고 분명히 써 놓아야만 후·백이 가려질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이 문제는 한 눈금의 오차가 없어야 할 우리 활인 천역자들의 '자대'이면서 '칼'임에 더 말할 나위가 없었습니다.
선입금을 받고도 4년을 끈 저의 진의는 바로 이점입니다. 저는 제가 아는 것을 여기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미리 알고 권유있게 먼저 하게 될 말씀들을 애써 기록한 것입니다. 대 만족하실 것 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전화 070-7514-8680에서 제가 직접 주문 받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辛卯 季冬 鼓卜子 曉史 拜上

고복자(鼓卜子) 저술 소개

- * 활용서
■ 육임재정비법시리즈 최종 2011 완결판
■ 효사육임산책(휴대용)·효사육임복번집(좌정용)
■ 도사(계물)어보(2011 중보판)
■ 출산길일시택일비법(2011 개정판)
■ 육임풍수(2011 개정판)
■ 육임1년신수비결(2011 개정판)
■ 육임재정비법(중보개정판) : 휴대용 좌정용
■ 도정기(道程記) - 신간
■ 불가법요집(佛家法要集) - 고령재완성도 / 해당법문 경구 색인 수록 / 법회의 감동성 고취 구성 / 각종행사 30여 발원·기도문 게재 등 새 지평이 제시됨.
■ 육임대견서(2011 개정판)
■ 불 효사활인 천역집(2011년 완결최종판 CD프로그램)
■ 불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鼓龜命數)
■ 육임운명판의 CD(2011년 최신판)
■ 오행제례의식집(2011 개정판)
■ 육임복번집(2011 개정판)
■ 육임사주장정법(2011 개정판)
■ 육임운명강론(曉史六壬講論) 2011 보정완결판 / ·상권 : 육임운명판단법 고귀명수(2010년(학승용) ·하권 : 육임사주장정법 2010년(학승용) / 육임대요문판 / 사과사전보기요령/형목별주요신상지시 /사과사전보 / 천지반표 / 과 / 격 / 초사 / 국수해설 / 형목별성부정단정 수록 / 2015쪽(임상용)

육임강의 「도술(방법실기)반」 접수받습니다.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070-7514-8680
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16 남도빌딩 403호 (조계사 건너편 SK건설 옆건물)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301-778137
계좌번호 301-0071-802701 [예금주 : 육임나라(주)]
* 카드결제 가능함 *